

농촌진흥청,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사회 열어

- 21일 충남 논산시 개최, 풀사료 생산 경영체·청년 후계농 참석
-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수입 건초 대체 및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풀사료 생산 농가에서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 후계농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연사회에서는 알팔파 열풍건초 제조 기술 교육,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와 수입 건초의 사료가치 분석 비교, 알팔파 수확 및 연중 생산에 적합한 안정재배 기술 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열풍건초의 품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건초(수분 함량 20% 미만 풀사료)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영양분이 많은 잎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말린 알팔파 건초의 사료가치는 조단백질이 23.57%, 총가소화양분이 64.35% 내외다. 최고 등급 외국산 알팔파 건초(조단백질 17.38%, 총가소화양분 64.14% 내외)와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열풍건초를 생산하는 박덕화 대표(예담영농조합법인)는 “알팔파 열풍건초 품질은 수입 건초와 비슷했고, 가격은 더 저렴해 축산농가와 풀사료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건초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했다. 올해는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도에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국내에서의 알팔파 생산 못지않게 품질 좋은 건초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며,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알팔파 건초 생산 기반이 더 많은 지자체와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충남 논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사회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사	정종성 (041-580-6748)



□ 추진 목적

-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확대에 사료비 절감 및 풀사료 수입 개방 대응
 - 국내산 열풍건초 제조 및 가축급여 효과 등 현장 홍보 강화

□ 행사 개요

- 일 시: '24. 5. 21. (화) 14:00 ~ 16:00
- 장 소: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74-7
- 참석인원: 약 150명 내외
 - *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사·군농업기술센터, 지역 농 축협, 조사료 경영체, 관련 대학 등
- 주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후원) 한국초지조사료학회, 사료작물연구단
- 주요내용
 - 국내 알팔파 안정재배 기술 및 열풍건초 생산 기술 교육
 -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농가 사례 발표 * 농가 경영체 대표
 - 알팔파 수확·열풍건초 제조 시연 및 사료가치 현장 평가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	30'	등록
14:00~14:10	10'	개회 및 행사 안내
14:10~14:20	10'	인사말
14:20~14:50	30'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시연
14:50~15:10	20'	농가 사례 발표(알팔파 재배 및 열풍건초 제조) * 농가 대표
15:10~15:30	20'	알팔파 연구개발 성과 소개(품종개발, 열풍건초 등)
15:30~15:50	20'	알팔파 수확 시연 및 품질 평가 * NIR 사료가치 평가
15:50~16:00	10'	폐회 및 기념촬영